

# 정읍시 '컨테이너 미술관' 3곳 개관

전북 최초 간이 상설미술관

신태인·연지·수성

내년 2월13일까지 기획전시

코로나19로 각종 미술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미술관' 이 새로운 전시 대안으로 떠올랐다.

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틀 설치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작은 미술관이다.

시는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올해 정읍시립미술관에 수집된 신소장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시 '2021 신소장품' 전을 마련했다.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내년 2월13일까지 열리며 정읍지역 작가들을 포함해 총 12명 작가의 작품 12점이 출품된다.

전시구성은 장소별로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PART 1(신태인)에서는 '계절의 인상'을 주제로 계절별 정읍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PART 2(연지) 주제는 '오랜 기억의 회상'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의미로 구현한 수묵 작품을 포함해 정



정읍시는 지난 17일 전북 최초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간이 상설미술관인 '달하미술관'을 세 곳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읍시 제공>

읍 문화의 특징을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끝으로 PART 3(수성)은 '일상 속 세상'을 주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을 비롯해 정읍사람들의 삶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의 작품은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매일 오후 5시(동절기)부터 밤 12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에 '달하미술관' 개관 기획전시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 최초로 구축된 '간이 상설미술관'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

대상자 750명 중 98% "만족"

"월급이 최저 임금 수준이어서 팍팍했는데, 근로 청년수당을 받으니까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 98%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7월부터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의 근로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수당은 만 18~39세 시민으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세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역 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으로 지급되고 있다.

익산시가 최근 이 수당을 받는 7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가 매우 만족, 12%가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가 98%로 높았다.

또 청년들의 현재 회사생활에 대한 만족은 76%, 불만족은 24%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발전 가능성 없음 등을 꼽았다.

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이내에 현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향 없다'가 78%, '의향 있다'가 22%를 보였다.

수당의 주 사용 용도는 '취미·교통 등 생활비'가 74%를 차지했으며 '취미·문화생활'이 13%로 뒤를 이었다.

시는 이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내년에는 타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관내 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전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4개사업 선정



부채공예를 통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남원시민들. <남원시 제공>

### 도비 등 사업비 9000만원 확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2022년도 생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응모한 4개 사업이 선정됐다.

남원시는 전북도 공모사업에 총 7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4개의 사업이 선정돼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한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출향인, 도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 힐링 네트워크를 구축

함으로써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농촌활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남원시 사업은 마을주민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요건 다습기마을과 도농상생 힐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을단위 맞춤형 지원사업에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개·보수지원사업에 산동면 상신마을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푸드플랜 주민참여단 민간위원 모집

4개 분과 이달 말까지 신청

고창군이 주민 주도 지역 먹거리 정책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창군은 이달 말까지 '고창군 푸드플랜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주민참여단은 먹거리기획생산, 공공먹거리·복지, 먹거리안전순환, 먹거리활력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고창군 푸드플랜 주민참여단은 고창군 먹거리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책개선 등을 제안하게 된다. 또 특강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참여단에게 먹거리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돕고, 지역 먹거리 여건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고창군 먹거리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농어촌식품과 푸드플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은 "지역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창형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4월 푸드플랜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직거래장터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의 '구강튼튼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치과위생사로부터 치아 상식 문답퀴즈를 듣고 있다.

## 순창군, 어린이집 등 대상 '구강튼튼교실' 운영

순창군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다음달 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9개소 246명을 대상으로 '구강튼튼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희망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들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사전예방하고 구강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안내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또 어린이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아 모형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하고,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 예방에도 힘을 기울인다.

특히 불소도포 시술은 치아의 내상성(산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을 높여줘 40~70%의 충치 예방효과가 있으며, 치아를 강하게 하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해 치아우식증을 사전 예방한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로 원장은 "미취학어린이는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이 중요하다"며 "이번 구강튼튼교실이 아동들의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n@

## 군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조치

군산시가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산림청, 전라북도도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 사용농가, 찻집방 등 25개소다.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